



**정전 60년 한반도에 평화로...**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는 3월 15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봉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자원 스님을 비롯해 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 김정훈(자문위원단장)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현화와 분향,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후 모역을 찾아 반아심경 봉독과 축원을 진행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용성 스님 대각사상 집대성 된다

대각사상연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5개년 계획 발표

한글 역주, 해외포교, 독립운동 등 근대 불교계 선구적 역할을 한 용성 스님(사진) 관련 자료가 집대성된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과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보광 스님은 3월 13일 서울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발표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발간돼 배양된 '용성 대종사 전집'을 기반으로 저술과 사상연구를 재조사, 수집해 진행된다.

사업은 총예산 8억원 규모로 5년 동안 진행되며 대각사상연구원의 주관 하에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전산화 부분을 진행한다.

전산화는 자료 원본 이미지화와 재번역 자료의 DB구축으로 진행되며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관리 하에



탄신 150주년 맞아 DB구축 이미지화 및 한글 재번역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가능 대각교 활동 재조명 등 기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2013년에는 자료수입 및 번역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2년차 증의작업, 3년차 스

캔 및 한글파일화, 4년차 편집 및 교정·DB설계, 5년차 검색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회에서 사업 총괄을 맡은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이 1863년 탄생하시고 150주년을 맞이해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7년 전 도업 스님이 낸 '용성 대종사 전집' 18권을 기반으로 재번역 및 원전 수록으로 진행한다"고 사업을 소개했다.

간행위원장을 맡은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용성 스님은 우리 시대 진보적 불교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대각으로 대변되는 민중불교운동과 민족독립운동 정신의 계승과 현대화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각회는 이번 사업과 함께 4월 2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용성' 칸타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법인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조계종 중앙종회 안건 상정... 통과 의지 높아

조계종 소속 승려나 사찰이 출연한 법인들을 종단에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조계종과 관련 법인은 재단이 95개, 사단법인 111개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보정체 망실과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게 법인법이다.

첫 발의는 2011년 3월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로 올라왔지만 선학원과 대각회 등 주요 법인들의 반대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당시 주요법인들은 '선학원과 대각회의 이사 1/3을 종단 추천 스님으로 한다'와 '주지 품신을 종단 분발사인사규정에 의거 품신한다'는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운영권과 인사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총무원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법인법 제정안 수정을 위임했고, 특위는 해당 법인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인법 제정안 수정 제안을 살펴보면 중앙종무기관, 사찰 및 승려가 설립한 법인을 종단에 등록할 것을 명시했으며, 종단은 법인의 재산·운영관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가 됐던 조항에 대해서도 △법인 사찰 주지는 이사장 임명 후 총무원에 보고 △선학원 이사의 1/3은 종단이 추천하되 추천 이사는 법인 연구 사찰 승려로 하는 등 완화된 법안을 내놨다. 또한 선학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문제 사항을 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총무원은 3월 14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이유도 이런 완화된 법안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날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찰을 설립했음에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 산하에 뒤 조계종과는 무관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인이나 법인 산하의 사찰들이 종헌 종법 체계에 편제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 "현재 법인법 제정안은 해당 법인과 구성원이 종도임을 확인하는 기본적 기준과 절차"라고 강조했다.

일부 법인들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3월 11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학원 임원을 종단 징계 절차에 회부하거나 △종단이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

총무원 2년 걸쳐 수정 제안 법인 인사운영권 침해 안해 삼보정체 망실·사유화 우려 미등록 법인 징계권도 포함

선학원, 대각회 등 반대 의견 "수용 후 대화 해결" 여론도

할 시 2002년 종단과 합의 후 개정된 재단의 정관을 이전의 내용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했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도 3월 13일 간담회에서 "50년 전 만들어 법인 산하의 사찰들이 종헌 종법 체계에 편제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 조계종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현 스님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법인법 제정안은 일부 특정 법인만을 대상으로 성안된 것이 아니다"며 "종단은 법 제정을 추진하면 해당 법인과 대화는 물론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들은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수용 후 대화로 풀겠다는 의견도 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승적 차원의 수용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과 한 뿌리다.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서 대화로 조율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며 "종단과 일부 재단 스님들과의 온도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중앙종회에는 법인법을 비롯한 종법 제개정안과 △원로의의원 추천, 재심호계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소정심사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특위 위원장 및 위원 보선 등 인사안 △특수출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교방송 사장의 종교 정체성 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 요구 결의문 채택 △불교닷컴 제재 결의 해제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취주 상보>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새 교황, 인류 번영에 도움주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황 선출 축하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4일 프란치스코 1세가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데 대해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력이 더 많이 노력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길에 프란치스코 1세의 헌신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76)은 첫 남미 출신 교황으로 그는 즉위명의로 청빈의 성자인 프란치스코를 선택했다.

신종일 기자

### 932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법규위 '위헌 판결' 역풍 차별금지법 잇달아 발의 놓여준 포교 활성화 방안 시급	오현 스님 시조 '술' 교과서 수록
시방세계	5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범회	
신행·복지	6·7
1일 1식 단식 템플스테이 장애인 사랑음식 나누기 마음의 감기 '우울증'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정선 정암사	

### 사고

####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경력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① 경력기자 3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3년 2월 졸업자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3년 3월 31일(일)까지
-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mailto:cgseo@hyunbul.com)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2004-8204, 8205, 8212)

# LIKEONOMICS

호감을 얻고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TRUST 원칙을 지켜라!

**세상을 움직이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힌다!**

더 이상 기업과 마케팅, 광고를 믿지 않은 신뢰성 위기의 시대에 호감을 얻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 로버트 바르카바의 이 책은 호감을 얻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버트 바르카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

###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개발 베스트셀러 1위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갈 것이다.  
-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는 인생에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 다비드 호프만(『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의 저자)

거칠고 지배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호감 경제학의 시대에서는 인간 관계가 최고다. - 조니슨 배리(SAP 최고 마케팅 책임자)

신뢰와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호감도의 영향력과 이 책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정말 맘에 든다! - 오리 브래프먼(『스케이』, 『탈력』의 저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운에 맡기지 말고 이 책과 저자의 온라인 워크북을 곁에 두어라. - 켈빈 리(『오픈 리더십』, 『그라운드스텔』의 저자, 알타미터 그룹 설립자)

원픽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http://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https://www.facebook.com/bulkwang)

+ 원픽스는 불광출판사의 일반 교양 브랜드입니다.